

소위 한의약 모독사건

“결핵이 한약으로는 낫지 않는다”가 물고온 파동

김 대 규 / 본 협회 부회장

올바른 결핵치료를 계몽하기 위하여 만든 홍보전시판 중의 하나가 문제가 되어 전국의 한의사와 한약종사 1,400여명이 삼일당에 모여 한의약모독성토대회를 열고 결핵협회의 공개사과와 관계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떼어낸 전시판을 앞세우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결핵협회의 좀 세련되지 못한 표현과 한의약계의 과잉반응이 빚은 1960년대 초의 시대풍경 한토막.

가두전시가 사건의 발단

일제시에도 조선결핵예방협회가 만들어진 1936년부터 매년 결핵예방기간을 설정해서 결핵예방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으며 8·15 광복 후에는 1952년에 실시한 기록이 있으나 1953년 결핵협회 창립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결핵예방주간을 설정하고 보사부와 공동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했는데 시기는 11월과 12월사이였다.

1960년 결핵예방강조주간은 12월 1일부터 1주간 실시되었는데 각종 행사중

하나로서 가두전시도 있었다. 서울시청 철책 울타리에 시청이 관장하는 가두공보판이 있었는데 시당국과 교섭하여 예방강조주간동안 그 공보판에 “결핵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그림, 사진, 도표, 설명 등을 혼합해서 20점의 패널로 된 전시물을 국립중앙박물관 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전시했다.

그 전시물 중 올바른 결핵치료를 강조하는 대목에 비과학적 민간요법이나 미신을 배제할 것과 “한약으로는 낫지 않는다”라는 표어와 함께 한복에 탕건을 쓴 영감님이 진맥을 하고 있는 만화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제보에 접한 대한한 의사협회에서는 직원을 현장에 보내어 공보판에 첨부된 그 전시물을 촬영하고 철거하는 한편 그 사진을 각 시도 회장 앞으로 1매씩 발송하여 전국의 한의사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하였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대한한 의사협회와 대한한약협회 공동으로 결핵협회에 대하여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필자는 공보부장으로 있으면서

그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 감독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애매한 민간요법이나 매약 또는 한약에 의존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며 그런 경험을 가진 결핵전문인들의 의견을 모아 결핵이 발견되면 빨리 화학요법을 주로한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 계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과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손괴하고 탈취하였으므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통고를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협회는 결핵협회의 태도가 완강하자 보사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결핵협회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으며 보사부에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중재에 나섰으나 결핵협회에서는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만화그림은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한약으로는 결핵이 낫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은 정당함으로 본질문제는 결코 사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는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의 장면(張勉) 정부가 들어서 보사부장관은 국회 다선의원인 나용균(羅容均)의원이었고, 사무차관은 이병학(李炳學)박사였는데 자유당 독재의 억압이 사라지자 거리에는 매일 같이 각종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모든 이익집단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높여 사회가 혼란한 때였다.

당시 을지로 입구에 섰던 보사부의 복도에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농성을 시작



朴性洙 대한한의사협회장(1960년 당시)

하자 중재에 나선 보사부에서는 12월 15일 3차 연석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무차관실에서 열린 이 회의에 결핵협회측에서는 필자도 참석했는데 상대방에서 일방적인 주장만 하기 때문에 사과할 것을 거부하고 퇴장해 버렸다.

한약약모독성토대회

그러자 한의사협회에서는 1960년 12월 17일 성균관대학교 문리과대학 강당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약협회와 공동으로 한약약모독성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당일에는 전 한약계 인사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때마침 국민의료법 개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한의권(漢醫權)을 수호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도 있지만 여하간 한약약모독성토대회는 1960년 12월 19일 오전 11시 진명여자고등학교 삼일당에서 두 단체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에서 1,4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대한결핵협회가 공개사과하고 관계책임자를 즉각 파면할 것과 보건당국의 불공정한 보건행정도 차제에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와 각 언론사에 전달되었다.

대회 참석자들은 폐회후 격문을 뿌리면서 광화문과 시청 앞을 지나 보사부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날 서울 시내의 각 한의원에서 한의약모독성토대회로 인하여 오전중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1960년 12월 25일자 한국일보 석간 2면에 국민들에게 한의약 수호를 위한 호소문을 일방적으로 게재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결핵협회에서는 곧 한의사협회에서 이 사건을 고의로 과장 왜곡선전하여 그들의 세력확장의 수단으로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무렵 결핵협회 사무실이 남산 밑의 중구 회현동에 있었는데 퇴계로 입구, 지금의 대연각빌딩 맞은편에 한의원을 개원중이던 한의사협회 배원식(裴元植)이사가 사무실로 필자를 찾아와서 결핵협회의 처사를 비난하고 필자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결핵이 한약으로 낫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필자는 젊은 혈기와 확신으로 결핵협회의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그러면 결핵이 한약으로 낫는다는 증거를 대라고 응수했다.

배원식이사는 단구(短驅)이지만 풍채

가 당당하고 의림(醫林)이라는 한의학 잡지도 발행하고 있었으며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조예도 깊은 분이였다.

후일담이지만 이 사건 후에 필자는 잡지에 관심이 있어서 배이사를 방문하였고 배이사도 젊은 사람이 기백이 좋다고 하면서 필자를 잘 대해 주어 이따금 만나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는 그후 한의사협회장으로 활약했으며 지금도 그 장소에서 8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잡지발행과 환자진료를 계속하고 1년에 5,6회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결핵협회에 대한 성토가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피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보사부에서는 재차 중재에 나섰다. 결핵협회에서는 사태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특히 한의사를 그린 만화그림이 오해를 초래한데 대하여 구두로 유감을 표시했고 한의사협회측에서도 그 이상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며 보사부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사태의 재연(再燃)

가두전시물에 의한 소위 한의약모독 사건이 발생하지 3년여의 시일이 경과한 1963년 11월 7일 오후 7시경 서울 텔레비전방송국은 결핵협회에서 이전에 제작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결핵계몽영화를 전국에 방영했다. 올바른 치료를 강조하는 부분의 나레이션에 "결핵은 한약으로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 대한한의사협회에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전에 제작된 것이

主 催 社 團
大韓漢醫師協會

會 長 朴 性 洙
 副 會 長 李 英 來

決 議 事 項

- 一、今般「結核防治講習班」一節 있어서 漢醫師會 醫藥社 保健社 會館 大韓醫師協會에서는 謝詞文章 発表할 것임
- 二、**「國貨法改正案」** 印刷 罷業할 것
 又는 **「格下等 國民多數의 思想에 違背되는 「國民醫藥法」改正案** 印刷 決定反對한다
- 三、國民醫藥法을 **修正案** 時에는 秘出決定을 止動하고 公正會 廢할 것
 又는 對反對할 것
- 四、**三千種講習班** 四千種講習班에 對한 儲蓄의 保障行政 總對反對할 것
- 五、保健社 會館 會館內의 漢醫師會內에 漢醫師會 印刷 決定反對할 것
- 六、漢醫師會講習班에서 依禮의와 舍市道에 每年試驗 保證政項上 保證會와 對하여 機關을 보되 必하고는 醫藥社에 左記 各宗會 即時 來函할 것
- 七、**「此行 國貨法改正案」** 印刷 決定反對할 것
- 八、**「無償 醫藥講習班」** 漢醫師會 均等 待遇할 것
- 九、**「가정 醫藥」** 漢醫師會 均等 待遇할 것
- 十、**「藥入 漢醫師會」** 均等 分配할 것

▲ 한의사협회와 한약협회에서는 한의약도독성토대회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와 언론사에 전달하고, 1960. 12. 25일자 한국일보에 결의사항이 열거된 호소문을 광고란에 게재하였다.

그대로 방영된 것으로서 화면에는 한약에 대한 것이 들어있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약협회와 함께 이전보다는 훨씬 온건한 항의문을 1963년 11월 20일 결핵협회에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결핵협회에서는 11월 30일 텔레비전에 방영된 영화의 문제된 부분은 환자가 임의로 매약이나 한약을 구득하여 남용하지 않도록 계몽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석명서(釋明書)를 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12월 26일 한약협회와 공동으로 재차 항의문을 결핵협회에 송달했다.

결핵협회에서는 그때 한창 크리스마

스 썰 모금운동을 전개중이었고 항결핵 운동은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대전제하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나 특정단체나 계층과 갈등을 빚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964년 1월 12일 앞으로 계몽자료 제작에 있어 본의 아닌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민보건상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결핵퇴치운동에 적극 동참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곧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

† 착오나 추가사항 또는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